

'100대 기업' 광주·전남엔 한 곳도 없다

1만1500여곳에 이르는 광주·전남지역 기업 가운데 2013년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에 포함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00위권에 턱걸이했던 현대삼호중공업(주)은 조선업 불황 속에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1000대 기업으로 살펴보면 25곳이 포함됐다. 이 역시 2012년보다 2곳이나 줄었다.

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의 '코잡 비즈'에 등록된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2013년 전국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와 전남에서는 100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 2012년 97위였던 현대삼호중공업은 11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100대 기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4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11), 경북(4), 경남(3), 울산(3), 인천(2), 충남(2), 대전(1) 순이었다.

1000대 기업엔 2012년보다 2곳이 줄어

광주상의 매출액 현황조사 조선·화학·철강 불황영향 현대삼호중 113위로 추락 1000대기업엔 25곳 포함

25곳이 포함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내수와 수출 여건의 동반 악화로 경영난이 심화된 가운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거나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조선, 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군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국철강(주)과 우리종합금융(주), KPX화인케미칼(주)은 각각 철강 수요산업의 영향 부진과 금융 영업난도 축소,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이 곤두박질치면서 1000대 기업 잔류에 실패했다. 또 대기업인 금호타이어(주)가 119위

에서 139위로, 금호산업(주)은 238위에서 244위로 밀려나는 등 업체 12곳의 순위가 하락했다.

반면,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13곳이었다. 에어콘 등을 생산하는 광주의 오텍캐리어(주)는 2012년보다 10.1% 증가한 3174억원의 매출로 937위에 올라 2009년 이후 4년 만에 1000대 기업으로 재진입했다. 전남의 한국바스프(주)는 183위에서 176위로, ㈜해양도시가스(주)는 518위에서 509위로 올라갔다.

1000대 기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704개, 경상권이 177개, 충청권이 74개 포진해 있는 반면 호남권은 전북을 포함하더라도 36개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1000대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8.5%로 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나 광주의 경우 지난해 -7.2%로 역성장해 전북(-20.6%)과 충북(-11%), 경북(-10.2%), 울산(-9.4%)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

로 매출 감소폭이 컸다. 업종별로 보면 25개 업체 중 제조업이 14개로 가장 많았다. 고용증가폭은 호반건설(주)과 남산석유(주), 성장이앤씨(주), 백제약품(주) 등이 40% 이상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기업을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2위, 한전KPS(주)가 30위, 한전KDN(주)이 816위를 차지해 이들 기업이 올해도 비슷한 실적을 기록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주력산업들이 글로벌 불황과 차이나 리스크 등 경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1000대 기업수와 총매출이 감소했다"며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함께 취약한 중견기업의 저변 확대 등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65.25 (-7.66)

▲ 금리 2.29%

▲ 코스닥 566.74 (+3.92)

▲ 환율 1074.10원 (+8.00)



지난 7일 임종룡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장성(주)이맥스아이엔씨 공장에서 오경규 대표로부터 생산과정을 설명 듣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 현장경영 나서

이맥스아이엔씨 방문 애로청취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이 지난 7일 전남 지역 우량 중소기업인(주)이맥스아이엔씨(대표 오경규)를 방문해 임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경영에 나섰다.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임 회장은 "앞으로 농협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기술형 중소기업과 농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체 방문에서 오경규 이맥스아이엔씨 대표는 "NH농협은행과의 인연으로 회사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자금지원을 받아 월매출 40억원에서 현재는 80억원까지 수익을 올리는 등 성장할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 육성에 힘써 준 농협은행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임 회장은 또 이날 오후 나주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방문 NH농협은행과 자회사 직원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농협은행 관계자에게 입주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며 "농협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혁신도시에 aT본사지점, 한국농어촌공사지점, 나주혁신도시출장소 등 3곳을 신규 개설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비닐봉투 예쁘게 디자인 했어요

투는 총 4종류이고, 소·중·대·특대로 구분된다. 각각 12만 5000장씩 제작했다.

광주신세계가 8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에서 지난 7일 전통시장과 맞은 상생 및 동반성장 약속에 따라 새로 제작한 비닐봉투 50만장을 지역 16개 전통시장이 소속된 광주상인연합회에 전달하고 있다. 기존의 검정 비닐봉투를 대신할 디자인 비닐봉투는 총 4종류이고, 소·중·대·특대로 구분된다. 각각 12만 5000장씩 제작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4분기 광주에 아파트 4400가구 공급

오는 4분기 광주지역에 아파트 4400여 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8일 부동산사라방(homesrb.co.kr)에 따르면 최근 광주 주거단지를 조사한 결과를 4분기 11개 단지 4391가구가 신규 분양 및 입대를 앞둔 것으로 집계됐다.

10월은 남구에 분양이 몰린다. 서동에 영무에다움 310가구가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한다. 영무에다움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이뤄졌으며 오는 17일 견본주택 문을 연다. 현대힐스테이트(현대엔지니어링)로 이름을 바꾼 백운동지역주택조합도 이달 중 일반분양에 나선다. 77·84㎡ 527가구가 이뤄진 이 단지는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204가구를 분양한다.

또 월산동 이스토리 149가구가 이달 중 분양을 시작하며, LH가 효천2지구 B5블록에 공공분양 아파트 521가구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 및 접수 일정은 이달 말께 공개된다. 광산구에서는 소촌동 483-1번지 일대에 G5스테이션 67㎡ 8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아파트 공급 소식도 있다. 지난 7월 북구 중흥동에서 신규 분양됐던 도나우타운이 이번에는 임대아파트로 용봉동에 상륙한다. 용봉동 도나우타운은 59㎡ 228가구가 구성된다.

11월에도 아파트 공급이 이어진다. 북구 풍향동 재개발지역에 공급되는 금호어울림이 11월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 올 4분기 광주 분양 및 임대 현황

(자료:부동산사라방)

시기	단지명	전용면적(㎡)	가구수	비고
10월	서동 영무에다움	84	310	분양
	백운동 현대힐스테이트(현대엔지니어링)	77·84	527	일반분양
	소촌동 G5스테이션	67	86	분양
	월산동 이스토리	59	149	분양
	효천2지구 B5블록 공공분양	74·84	521	공공분양
	용봉동 도나우타운	59	228	임대
11월	운암동 포레일	59·74 외	216	분양
	풍향동 금호어울림	59·71·84	960	분양
	방림동 명지로드힐	112	192	분양
	첨단 대우이안	59·84	834	일반분양
	도산동 우방아이유엘	59·79	368	임대
11개 단지			4,391	

다. 이 아파트는 59·71·84㎡ 960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또 북구 운암동에 포레일 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59·74㎡ 등 216가

구로 구성되며 광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단지 내 테라스형 아파트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제품 수출 계약 622억 ... 광산업전시회 성료

"광 제품 수출계약만 622억원--내년에 또 만나요."

'光 ICT 미래 문화콘텐츠의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2014 국제광산업전시회'가 8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삼성전자와 글로벌광통신 등 국내외 LED관련 대기업 및 광 관련 172개 업체가 참여, 전 세계 광산업체와 광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전시회 관람객만 1만5000여 명이 달했다.

특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24개국에서 바이어 161여명이 국내 광통신 및 LED 조명업체들과 247건의 상담을 펼친 결과, 160개사에서 수출상담액 3350억원, 수출계약액 622억원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목을 끌었던 OLED테마관은 레이저 은하수터널과 무대조명 체험, 자동차 가상 시뮬레이션 등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공간으로 꾸며져 광산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매년 개최되는 국제광산업전시회를 통해 제2의 광주 광산업 도약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광산업이 세계 '톱3'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제적 마케팅 장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내년 국제광산업전시회는 2015년 10월 7일부터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친환경 광주건축박람회와 광주축의광고대상전 등 3개 전시회가 병행 개최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 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공인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추소민 대표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고침무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